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⑤

Blue & White Garden 비밀의 정원

집은 내키는 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정원은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즐길 수 있다. 꽃을 기다리는 설렘을 주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행복한 정원. 가든 디자이너 강혜주 씨가 제안하는 정원 디자인 속에서 나만의 꿈을 찾아보자. 정리 이세정



블루 위주의 식재에 화이트 컬러를 연결해서 멕시코세이지, 부루세이지, 썩부쟁이, 라벤다, 백공작, 아스타, 수국을 심고, 교목으로는 황금실화백, 로켓향나무를 식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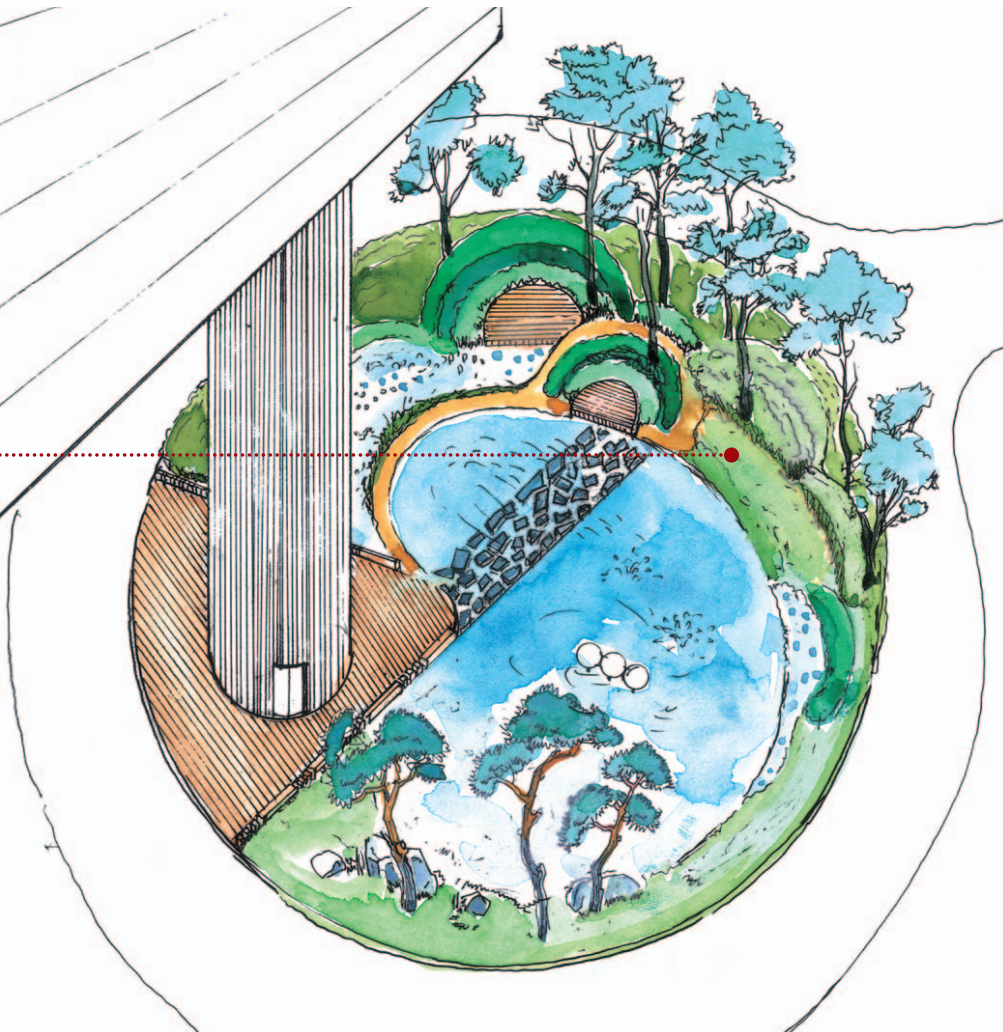
▲ 연수원 정문으로 들어서면 가장 처음 대면하는 맞이정원. 수직으로 강한 건물과 대비해 손님에게 방석을 내어주듯, 부드러운 인상이다.

경남 사천의 LG손해보험 인재니움은 기업의 연수원이자 휴양리조트 공간이다. 간삼건축이 설계한 건축물은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 공간이기 보다, 전원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한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처음 맞이하는 정원이 이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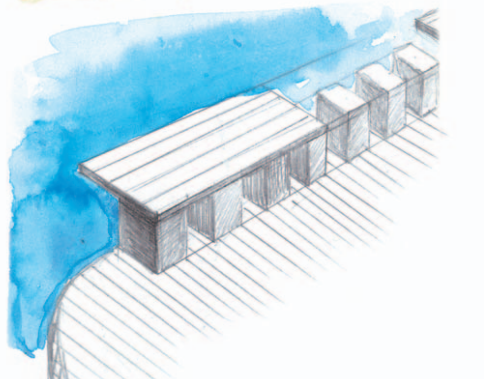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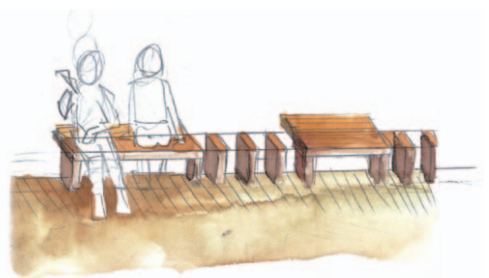
맞이 정원은 오는 손님들에게 방석을 내어 주는 마음으로 디자인되었다. 편안한 휴식과 개인적인 산책을 위해 적당한 차폐를 주어 이르게 만들고, 잠시 앉아 쉬어가는 의자와 테크 등을 주요 요소로 배치했다.

특히 기업의 로고를 본 단 원형 구조의 수변 테크는 나무와 풀, 꽃이 어우러진 울타리를 등받이 삼아 한가롭게 놓여 있다. 이들 뒤로는 자갈길과 홍가시가 어우러진 뒤편 오솔길을 두어 사람들의 동선을 이끌어 준다. 식재는 블루와 화이트를 기본 컬러로 간결하고 심플하게 구성하고, 철마다 피고 지는 꽃을 두어 방문객의 마음을 녹일 것이다. 가을철 식재가 이루어져, 봄꽃들은 내년 초에 따로 보식하기로 했다.

아기자기한 식재 반대편으로는 빼어난 소나무로 기선을 잡았다. 포항 소나무와 경주 소나무, 남한강 수석의 멋을 살려 기품까지 더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맞이 정원은 가장자리 의 수목들이 자리를 잡아 더욱 비밀스러운 공간이 될 것이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연못가를 호젓이 산책하는 기분을 선사할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프라이빗한 정원을 원한다면, 생울타리로 차폐를 하고 그 안에서 원형 테크를 시공해 나만의 정원을 누리는 호사를 가져도 좋겠다.



▲ 연못을 보고 앉을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벤치를 제작했다.



수목으로 울타리를 삼은 데크 공간



▲ 데크 앞면은 키작은 화단으로 꾸며 목재의 선이 살고 데크에서 안정감 있게 내려다 보이는 정원을 구성한다.



▲ 반원형 데크 주변으로 홍가시를 심어 차폐 효과를 낸다. 이국적이고 비밀스런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데크의 계단면은 원형과 동선을 고려해서 언밸런스하게 설치하고 조명을 위한 등과 전선은 토목과 구조물 제작시 함께 설비하도록 한다.



정원 관리를 위한 TIP

수국이나 목수국, 리아트리스, 에키네시아 등은 꽃이 지고 마른 꽃으로 가을과 겨울에 보는 것이 감상 포인트라면 아스타 종류처럼 꽃대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꽃들은 지는 꽃을 잘라 주면 계속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부수중이나 지역에 따라 식물이 냉해를 입지 않는 종류도 다르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건물이나 지대에 따라 일조량, 바람 등의 영향으로도 식물체내의 수분 함유량과 온도 차이로 냉해를 입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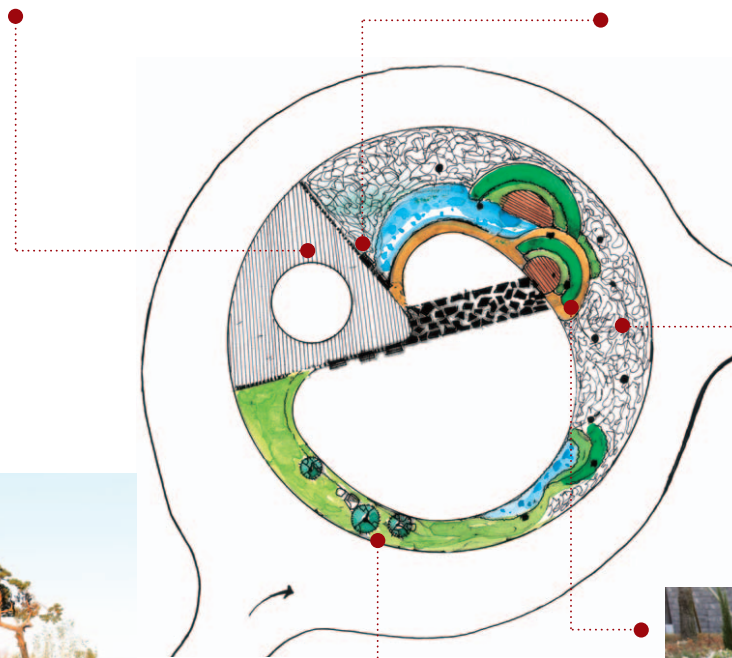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동안에는 물을 적게 주어 땅을 천천히 말려 식물의 수분 함유량을 낮추어야 동해를 피할 수 있다. 담장 아래나 햇살 아래보다 바람 센 곳, 그늘인 곳은 보온에 신경을 써야한다. 12월에는 멕시코 칸세이지, 블루세이지의 꽃대를 5cm 위로 자르고 짚을 엮어 덮어준다. 봄 구근류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미리 심어 두어야 한다.



▲ 여러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 짧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길 바라는 곳이다.



▲ 건근쟁의비름, 풍지초, 청사초, 아스타, 겨울에도 상록인 골드밴드를 식재하였다. 블루& 화이트 가든으로 하는 컨셉이나, 일부분 방해되지 않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



▲ 멕시코세이지, 블루세이지, 쑥부쟁이, 라벤다, 백공작, 아스타, 수국을 심어 블루 컨셉의 정원을 만들었다.



◀ 포항 조형목 3그루, 경주목 2그루, 남한강 수석으로 연출된 맞이 정원 초입. 맑은 연못에 비친 풍경이 매력적이다.



▲ 화이트 가든으로 로켓향나무, 쑥부쟁이, 백공작, 로즈마리를 금송과 함께 식재하였다



■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투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작품으로는 '걸리버가 머무는 자리', '라면정원', '마더스정원' 등이 있고,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이너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ildgarden3@naver.com